

생명의 말씀

지금은 참된 믿음이 필요할 때

단 3:12-18



남윤국 목사

· 기독교교회제모습찾기 대표회장  
· 불꽃교회 담임

첫째, 참믿음이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에 사드락과 메사과 아벳노고(가)가 어떻게 했습니까? 12절에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사과 아벳노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 여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했습니다. 이 세 사람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절하지 않았습니

다. 당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여 금으로 우상을 세워 백성들에게 자기를 신으로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자기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드락과 메사과 아벳노고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죽으면 죽을지언정 왕의 말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 속에 던져진다면

형벌도 보통 형벌이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이라면 왕의 신상에 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손이나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신앙만큼은 양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믿음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세상의 말도 듣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다른 종교도 길이라는 다원주의는 거짓된 것입니다.

둘째, 참믿음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왕이 풀무불에 던진다고 하자 세 사람은 무엇이냐고 대답했습니까?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멸하려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세 사람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습니

다. 예수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넘실거리는 바다가 있을 때 믿음이 없는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지만 모세는 어땠습니까?

유명한 설교가 스펠만 목사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계산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계산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성령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담대히 서는 것입니다.

셋째, 참믿음이란 조건 없는 믿음입니다.

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말은 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아 영광로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러나 느부갓네살이 사드락과 메사과 아벳노고를 질 때나 뜨겁게 한 풀무불에 던졌습니까?

그러나 이 세 사람은 목은 물론 옷과 머리털까지도 조금도 타지 않았습니다. 왕이 자세히 보니 불 속에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걸터 다닙니다. 그 한 사람을 보니 하나님의 아들과 같았습니다. 이처럼 참믿음은 조건이 없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참된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인본주의와 세속주의가 교회까지 침투해 들어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드락과 메사과 아벳노고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아 목숨 바쳐 신앙생활하며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참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정

중동선교회 이사장에 조남홍 목사



무슬림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자 창립된 중동선교회는 지난 10월 26일 (토) 저녁 서울 양재동 EBS에서 창립 25주년 감사예배와 2대 이사장 조남홍 선교제일교회 목사의 이·취임식을 가졌다. 조목사는 취임사를 통해서 "중동선교회를 위한 300명 기도 용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호소했다.

뉴욕교회 신임회장 양민석 목사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제45회 정기총회가 지난 10월 21일(월) 오전 10시 (현지시간) 뉴욕효신장로교회(담임 분석호 목사)에서 개최됐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신임회장에 단독 임무보한 양민석 목사(뉴욕그레잇네교회)가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평신도부회장은 전 교협 이사장이었던 손성대 장로가 투표과정 없이 만장일치 박수로 선출됐다.

서울신대 황덕형 총장, 직원 간담회



서울신학대학교(총장 황덕형 박사) 백주년기념관 국제회의실에서 총장과 행정 직원들과의 간담회가 지난 10월 11일(금)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는 황덕형 총장이 9월 취임 후 신임 총장으로서 직원들과의 소통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황 총장은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

사립대총장협, 지역 분과협의회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 대전·세종·충남지역 분과협의회(회장 이종서 대전대 총장)가 지난 11월 1일(금) 오전 한남대 본관 1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대전·세종·충남지역 사립대학 총장 및 부총장 16명이 참석해 안건을 논의하고, 한남대 이덕훈 총장의 안내로 디자인 팩토리를 둘러보며 캠퍼스 투어했다.

논평 한국교회연론회

잘못된 KBS의 교(基督教)파라치 행위, 바보야,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네가 문제야'

최근 공영방송 KBS는 한국기독교를 파괴(Paparazzi-파리처럼 왕왕거리며 달려드는 벌레와 같은 것들에 대한 이탈리아 어에서 유래된 말로, 연예인 같은 인사들의 사생활에 대한 사진을 찍고 폭로하는 사람들을 말함)하기 위해 애를 쓴다.

KBS가 기독교와 관련하여 보도한 것을 보면, 지난 21일에는 한국의 대형교회로 분류되는 서울 강남의 모 교회에서 은퇴한 목회자에 대한 보도를 하였다.

그런데 은퇴한 목회자가 해당 교회에서 생활비, 주택, 차량 등을 제공받은 것을 부정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평생을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목회를 하다가 은퇴하면, 교회법에 따라서 예우하는 것을 공영방송이 사비 일임은 아닌 것이다.

KBS는 이 부분에 대하여 '한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재계 주요 인사들이 다니는 대형교회로 알려져 유명해진...'으로 소개하여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하면

서, 10월 23일과 21일 두 차례 보도한다.

그리고 최근 대법원에서 10년 전 서초구청에서 모 교회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내 준 것이 '월권행위'라는 판결에 대하여, 10월 24일, 23일 4차례, 18일 4차례, 17일 2차례 등을 집중적으로 보도한다.

18일 보도에서는 '서울 서초동의 대형종교시설 000교회가 도로 지하에 지은 예배당을 결국 철거하게 됐습니다' 라는 아나운서 멘트를 사용하여, 교회 건물을 허무는 것을 가정사실화하여 선동하고 있다.

또 17일 보도에서는 '이로부터 무리한 허가, 징/관제 로비/외압 의혹 논란이 라는 제목으로, 마치 교회 건축을 권력 기관에 로비를 통해 지은 것처럼 보도한다.

그뿐만 아니라 KBS는 21일 종교인과 세와 관련하여 보도하고, 10월 10일에는 강동구의 모 교회 관련 보도, 9월 27일에도 역시 같은 교회 관련 보도, 22일, 26일에도 같은 사건 2건 등을 집요하게 보도하고

있다. 공영방송인 KBS가 왜 이다지도 교파파라치적인 보도 행태를 버리지 못하는가?

지난 22일 KBS공영노조의 성명에 의하면, '언론이 교회에 부정적인 뉴스를 부쩍 많이 보도하는 이유는 기독교가 문재인 정권을 집권 비판하는 것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일종의 보복 조치가 아닌가 의심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만약 공영방송인 KBS가 이런 시각과 정권을 대신한 복수심으로 교파파라치적인 방송을 하고 있다면, 이는 매우 잘못된 것으로 스스로 합정을 피는 행태이다. 정권 하수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언론을 인정할 국민들은 별로 많지 않다.

교회 안에는 일반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특수성도 있고, 일반인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상식적인 부분이 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일반화해서 교회가 받아들이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KBS는 교회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하여 절제하거나 이해하지 않고, 무조건 '까발리자'는 식으로 마구 보도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당분간은 KBS가 원하는 '교회 허물기'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KBS는, 신뢰가 안 가는 언론으로 낙인찍혔다. 과연 한국교회 허물기가 목표인 양 보도하는 KBS를 국민들은 얼마나 인정하겠는가?

현재 우리 사회는 매우 어두운 터널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 이런 현상들을 정확히 짚어주고,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유도해야 할 역할은 당연히 공영방송인 KBS에 있다.

최근 서울의 모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전교교 교사 까지리'는 외침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은 공영방송인 KBS가 책임감을 가지고 보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교육이 편향되었다면 이보다 중요한 문제

가 어디 있겠는가?

또 지난해 모든 조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던 소위 '계엄 문건' 사건을 어느 시민단체는 곳에서 내놓은 것을 가지고 KBS가 9시 메인뉴스에서 연일 보도하는 것은 무슨 의도인가? 국민들을 진영의 수렁에 빠지도록 조작하는 것인가?

지금 우리 사회의 큰 병폐는 공영방송인 KBS에 있다고 본다.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KBS가 과연 공정한가? KBS가 공영방송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자신들의 문제점은 간파하지 못하면서, 특정 종교를 편취하고, 허물려는 시도가 정당한가?

여기에 대하여 KBS는 답을 해야 한다. KBS에 한마디 꼭 하고 싶다면 '바보야, 교회보다 내가 문제야' 제발 공영방송인 KBS는 '외눈박이'가 되지 말고 사방을 제대로 살펴보기 바란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20년도 목사고시 공고

2020년도 목사고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서 류 접 수 : ① 일시: 2019. 8. 30(금) 17: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② 장소: 총회본부(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③ 방법: 등기우편
- \* 목사고시청원서 작성 및 제출 안내: 총회홈페이지(www.aogk.org)→ 자료실→ 서식다운로드→ 교단서식→ 제15호 목사고시청원서(구비서류첨부)→ 2부 작성→ 지방회에 제출 → 지방회임원회 심의→ 1부 지방회 보관, 1부 총회본부에 제출.
- \* 총회목회대학원 2학년 재학생은 우선 '재학증명서' 를 제출하고, 12월 졸업과 동시에 '졸업증명서' 를 제출한다.
2. 서 류 심 사 : ① 일시: 2019. 9. 05(목) 오전11시 ② 장소: 총회본부 회의실
3. 오리엔테이션: ① 일시: 2019. 9. 26(목) 오전10시 ② 장소: 총회본부
4. 목사고시료 : ① 납부일: 2019. 8. 30(금)까지 ② 금액: 50만원  
③ 입금계좌: 국민 061701-04-17686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5. 목사고시 : ① 일시: 2020. 2. 10(월)~11(화) 오전10시 ② 장소: 총회목회대학원 강의실
6. 전도사 경력 계산은 만으로 하되, 계산일은 4월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7. 직장과 목사직은 겸할 수 없으므로 직장을 가진 자는 목사고시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8. 목사고시 응시 자격은 헌법 제37조 및 헌법시행규칙 제13조를 준용한다.
9. 서류심사 이후에는 목사고시 서류일체와 고시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 회 장 목사 신재영 고 시 위 원 장 목사 김민규  
총 무 목사 이경진 고시위원회서기 목사 이석호